

S#07 집 밖.

강재가 문을 열고 나간다. 밖에 형우가 등을 지고 서 있다. 형우는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 보고 있다. 강재가 형우의 뒤에 서서 말한다.

강재

형.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. 그 반지.

반지라는 단어가 들리자 반지를 꼭 쥐는 형우. 말을 끊는다.

형우

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.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반지라고 나를 속여.

강재

아니, 형. 나 아니라니까요. 아니 상연이 저 새끼도 상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봤어요?

형우는 한숨을 쉰다.

형우

하, 미치겠네. 야, 그래서 일단 그 반지가 니꺼라고 치자. 그럼 뭐, 나는 어찌자고? 반지 어디 갔는데 그럼.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. 그리고, 반지 없으면 결국엔 경찰 올 거고. 의심 받는 건 니야. 상연씨가 뭐라고 하겠냐 거기서? 아이고 경찰관님 내가 범인입니다. 이러겠냐?

강재

저 새끼도 뒤져봐요.

문 뒤에서 나오는 상연. 주머니를 열며 뒤져보라는 듯 다가온다. 강재는 답답한 듯 허공을 바라본다.

형우

그냥, 새로 사든가 해 반지.

강재

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.

형우

그럼 뭐 내가 새로 갖다 바칠까? 손 댄 건 닐데 왜 내가 피해를 받아야 돼? 못 들었어?  
신고한다잖아. 거지새끼도 아니고 진짜. 계속 깨끗한 척 하지마. 추하게.

형우는 담배를 꺼내 핀다. 강재는 등을 지고 작게 중얼거린다.

강재

형도 손땀잖아요.

형우

뭐?

강재

목걸이 챙기는 거 다 봤어요. 왜 나만 의심을 받는 건데. 그딴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. 형처럼  
전과 있는 것도 아니니까. 가져가요 그냥 씨발.

형우는 강재를 주먹으로 친다. 고꾸라지는 강재.

형우

왜 재수 없게 옛날이야기를 해. 꺼져 그냥. 증인이 두 명이야.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 
알아. 잡혀가면 유품이고 뭐고 뒤진 네 애비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임마. 좋게 끝내줄라니까.  
심기를 건드려. 꺼지라고.

형우는 담배를 강재에게 던진다. 문밖으로 나가는 강재.